

##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

권 연 희

광주세광학교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

### 《요 약》

---

---

본 연구는 통신언어에 대해 언어 순화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2개 맹학교의 중등부 시각장애학생의 각 변인별 즉, 성별, 학교급별, 시력 정도별, 시각장애 발생시기별, 거주형태별로 총 35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검사 도구로는 총 15문항으로 인터넷 이용 실태와 통신언어 사용에 대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조사 분석한 결과 중, 시각장애학생의 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사용 실태에서 스크린 리더 사용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높았다. 그리고 통신언어의 사용 실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기숙사생이 통학생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제어 : 중등부 시각장애학생, 통신언어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문화 창조, 발전·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수단이다. 또한 언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언어가 없는 사회생활, 문화생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언어가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언어에도 많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서(정보통신부, 2006) 결과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국민

---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의 인터넷 이용률은 73.5%, 이용자 수는 3,358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5년 6월말 기준 인터넷 이용률 71.9%, 이용인구 3,257만 명과 비교했을 때 1.6% 증가한 수치이다. 2004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인터넷 이용률 70.2%, 이용자 수 3,158만 명 때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터넷의 보급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통신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이 여러 분야에서 우려할 만큼 통신문화 자체가 언어 체계를 왜곡시키거나 함몰시키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통신언어의 사용이 확산되고 이제는 통신언어가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언어'란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통신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통신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이용자들의 요구 때문에 일상 언어와는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음절 줄이기, 특수문자를 이용한 감정표현, 유아적 표현, 비속어·은어의 사용, 의성어·의태어 표현 등으로 나타난다(최은설, 2003).

이러한 표기 현상은 빠르고 편리하게 글자를 적으려는 경제적 동기와 일상어와는 달리 형태를 바꾸어 봄으로써 통신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거나 편하게 하며 친밀감을 나누려는 표현적 동기,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경험하려는 사회·심리적 동기 등에서 나타난다(이세호, 2002).

기성세대와의 차별화를 통한 청소년만의 의사소통 방법이 통신공간의 상황에서 정답게 보이려고 사용하던 통신언어가 이제는 점점 일상 언어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학교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과제물이나 편지 쓰기, 글짓기 등, 한글맞춤법을 무시한 언어사용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통신언어의 부정적 사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신언어의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방치하고 국어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학생들은 그 부정적 요소를 전혀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익히게 될 위험이 있다.

현재로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통신언어를 무리 없이 구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하기 보다는 언어 규범을 몰라서 잘못 표기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정화, 2004).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기본적인 쓰기 기술의 어려움과 함께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의 제한에서 오는 내용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잔존시력과 청력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은 주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접속하는 통신상에서 자연적으로 그 분위기에 흡수되기 마련이며, 이는 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점자책이나 점자 단말기를 통해 책을 읽기보다 전자도서나 음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책을 ‘듣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시각장애학생이 늘어나는 요즘, 잘못 표기 되는 통신언어로 그 피해가 더 직접적이며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비해 실제로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 통신언어가 단지 하나의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은어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언어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이제는 기존의 표준어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안학생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학생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 학생의 증가로 시각장애학생의 무분별한 통신언어 사용이 시각장애 친구들과의 대화, 수업 시간, 과제에서까지 사용되고 있기에 그 심각성을 느낀다.

정안학생에 대한 통신언어 실태와 언어순화방안에 대한 연구(김민희, 2003; 김봉섭, 1998; 송진행, 2003; 이세호, 2002; 이정복, 2000; 이정화, 2004; 정무사, 2002; 천세옥, 2003; 최은설, 2003)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실태조차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 사용에 있어서 주요 변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 순화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정도별, 시각장애 발생시기별, 거주형태별 변인에 따라 시각장애학생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과 통신언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신언어 순화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사용 실태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각 변인에 따른 통신언어 사용 실태의 차이를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소재하는 12개 시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355

명을 무선 표집하여 성별에 따라 남·여, 학교급별에 따라 중·고등부, 시력정도에 따라 맹·저시력, 시각장애 발생시기별에 따라 선천성·후천성, 거주형태별에 따라 통학·기숙사로 분류하였다.

시력정도에 따른 분류는 국립특수교육원(1999)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맹은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 저시력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상 0.3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시각장애발생시기에 따른 분류는 5세 이전의 시각장애를 선천성, 5세 이후의 시각장애를 후천성으로 구분(이해균, 2006)하였으며 그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변 인	구 분	학생수(명)	백분율(%)
성 별	남학생	217	61.1
	여학생	138	38.9
학교급별	중학생	115	32.4
	고등학생	240	67.6
시력정도	저시력	220	62.0
	맹	135	38.0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92	54.1
	후천성	163	45.9
거주형태	통학	138	38.9
	기숙사	217	61.1
전 체		355	100.0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송진행(2003), 천세옥(2003), 이정화(2004)의 연구에 대한 설문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시각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 3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하여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재검사의 상관계수(r)가 중학생의 경우는 .88, 고등학생의 경우는 .89이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에서 중학생의 경우는 .87, 고등학생의 경우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의 실태에 대해 5문항, 통신언어 사용에 대해 10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맹학생은 점자로, 저시력학생에게는 20포인트, 글씨체는 고딕체로 제작하여 제공했다. 전국 12개 맹학교에 38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361(9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여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질문지 6부를 제외한 355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방법은 선다형 문항의 경우  $\chi^2$ 검증을 실시하였고, 5단계 평정척도 문항은 t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인터넷 이용 실태

#### 1)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율에 대한 반응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율 (%)

변인	구분	보유	미보유	df	$\chi^2$
성별	남학생	181(83.4)	36(16.6)	1	.000
	여학생	115(83.3)	23(16.7)		
학교급별	중학생	102(88.7)	13(11.3)	1	3.468
	고등학생	194(80.8)	46(19.2)		
시력정도	저시력	188(85.5)	32(14.5)	1	1.796
	맹	108(80.0)	27(20.0)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64(85.4)	28(14.6)	1	1.251
	후천성	132(81.0)	31(19.0)		
거주형태	통학	129(93.5)	9(6.5)	1	16.612***
	기숙사	167(77.0)	50(23.0)		
전체		296(83.4)	59(16.6)		

\*\*\* p < .001

<표 2>에서와 같이, 자기 가정 및 숙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율’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96명으로 83.4%에 해당되며,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59명으로 16.6%였다. 보유하고 있다는 반응이 훨씬 많았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후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는 선천성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가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주형태별로는 통학생(93.5%)이 기숙사생(77.0%)보다 컴퓨터 보유율이 더 높게,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는 컴퓨터 보급이 높은 데 비해 아직 기숙사에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율이 83.4%인 것으로 볼 때, 시각장애학생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통신언어에도 그 만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스크린 리더 사용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맹학생을 위한 컴퓨터 음성지원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반응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인터넷 사용시 스크린 리더 사용여부 (%)

변 인	구 분	사 용	미사 용	df	X <sup>2</sup>
성 별	남학생	91(41.9)	126(58.1)	1	11.193**
	여학생	83(60.1)	55(39.9)		
학교급별	중 학 생	76(66.1)	39(33.9)	1	19.841***
	고등학생	98(40.8)	142(59.2)		
시력정도	저시력	71(32.7)	148(67.3)	1	61.407***
	맹	102(75.6)	33(24.4)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15(59.9)	77(40.1)	1	19.814***
	후천성	59(36.2)	104(63.8)		
거주형태	통학	61(44.2)	77(55.8)	1	2.091
	기숙사	113(52.1)	104(47.9)		
전 체		174(49.0)	181(51.0)		

\*\* p< .01 \*\*\* p< .001

<표 3>에서와 같이 스크린 리더 사용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미사용이 51.0%, 사용이 49.0%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은 사용자가 60.1%로 높게 나온 반면, 남학생은 미사용자가 58.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에서 중학생이 66.1%로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59.2%로 미사용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력정도에 있어서는 저시력학생이 67.3%로 미사용자가 높게 나타난 반면, 맹학생은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75.6%로 높게 나타났다. 시력

장애 발생시기별로는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은 59.9%로 스크린 사용자가 높은 반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은 미사용자가 63.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시력정도별, 시각장애 발생시기별에서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거주형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크린 리더는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역시 저시력학생보다 맹학생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맹학생의 스크린 리더 사용 정도가 많은 것으로 보아 맹학생에게도 통신언어 습득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전자 우편 주소의 소유량

자우편 주소(e-mail address)를 몇 개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으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전자우편 주소의 소유량 (%)

변 인	구 분	미사용	1개	2개	3개	4개이상	df	$\chi^2$
성 별	남학생	58(26.7)	42(19.4)	35(16.1)	26(12.0)	56(25.8)	4	10.305*
	여학생	23(16.7)	25(18.1)	33(23.9)	27(19.6)	30(21.7)		
학교급별	중 학 생	26(22.6)	23(20.0)	21(18.3)	16(13.9)	29(25.2)	4	.375
	고등학생	55(22.9)	44(18.3)	47(19.6)	37(15.4)	57(23.8)		
시력정도	저시력	43(19.5)	46(20.9)	41(18.6)	32(14.5)	58(26.4)	4	5.214
	맹	38(28.1)	21(15.6)	27(20.0)	21(15.6)	28(20.7)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36(18.8)	31(16.1)	44(22.9)	24(12.5)	57(29.7)	4	14.572 **
	후천성	45(27.6)	36(22.1)	24(14.7)	29(17.8)	29(17.8)		
거주형태	통학	31(22.5)	27(19.6)	26(18.8)	23(16.7)	31(22.5)	4	.827
	기숙사	50(23.0)	40(18.4)	42(19.4)	30(13.8)	55(25.3)		
전 체		81(22.8)	67(18.9)	68(19.2)	53(14.9)	86(24.2)		

\* p< .05, \*\* p< .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우편 주소의 소유량에 대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이 '미사용(26.7%)'이 가장 많았으며, 4개 이상(25.8%), 1개(19.4%), 2개, 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은 2개(23.9%), 4개 이상(21.7%), 3개(19.6%), 1개(18.1%), 미사용(16.7%)의 순으로 남학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시각장애 발생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은 4개 이상(29.7%), 2개(22.9%), 미사용(18.8%), 1개(16.1%), 3개(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천성 시각장애학생학생은 미사용(27.6%), 1개(2.1%), 3개

와 4개가 같은 17.8%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2개(14.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메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 외의 집단에서는 양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4개 이상(24.2%), 미사용(22.8%), 2개(19.2%), 1개(18.9%), 3개(14.9%)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진행(2003)의 연구에서는 25%의 남학생이 4개 이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여학생은 35%로 남학생이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시각장애학생보다 정안학생이 전자우편 소유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인터넷 이용 목적

시각장애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을 정리하며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학교공부 및 자료 찾기	86	11	57	41	160	887
전자우편 하기	98	48	61	100	48	973
게임 오락하기	88	74	70	86	37	937
채팅하기	48	119	63	81	44	758
음악듣기	34	103	105	47	66	752

\* 점수합계=(1순위×5점)+(2순위×4점)+(3순위×3점)+(4순위×2점)+(5순위×1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을 보면 ‘전자우편을 사용하기 위해(973)’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게임 오락하기(937)’, ‘학교 공부 및 자료 찾기(858)’, ‘채팅하기(758)’, ‘음악듣기(752)’ 순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화(2004)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메신저(36.8%), 커뮤니티(26.4%), 게임(21.4%)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진행(2003)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채팅을 하기 위해서(32.9%)’, ‘전자 우편을 사용하기 위하여(27.2%)’, ‘게임 오락을 하기 위하여(17.9%)’, ‘학교공부를 하기 위하여(10.5%)’, ‘정보를 알기 위해(8.3%)’, ‘MP3 음악을 듣기 위해(3.3%)’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언어 확산 속도가 빠르며 재미있게 사용하려는 욕구에서 다양한 통신언어가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5) 전자우편, 홈페이지, 채팅, 게시판에 글 올리는 정도

전자우편, 홈페이지, 채팅, 게시판에 어느 정도 글을 올리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이 전자 공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표 6>과 같다.

<표 6> 전자우편, 홈페이지, 채팅, 게시판에 글 올리는 정도 (%)

변인	구분	①	②	③	④	⑤	df	$\chi^2$
성별	남학생	46(21.2)	25(11.5)	8(3.7)	53(24.4)	85(39.2)	4	6.509
	여학생	31(22.5)	24(17.4)	4(2.9)	41(29.7)	38(27.5)		
학교급별	중학생	25(21.7)	18(15.7)	6(5.2)	29(25.2)	37(32.3)	4	2.523
	고등학생	52(21.7)	31(12.9)	6(2.5)	65(27.1)	86(35.8)		
시력정도	저시력	52(23.6)	34(15.5)	5(2.3)	63(28.6)	66(30.0)	4	8.877
	맹	25(18.5)	15(11.1)	7(5.2)	31(23.0)	57(42.2)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38(19.8)	35(18.2)	9(4.7)	55(28.6)	55(28.6)	4	13.834**
	후천성	39(23.9)	14(8.6)	3(1.8)	39(23.9)	68(41.7)		
거주형태	통학	35(25.4)	17(12.3)	4(2.9)	28(20.3)	54(39.1)	4	6.494
	기숙사	42(19.4)	32(14.7)	8(3.7)	66(30.4)	69(31.8)		
전체		77(21.7)	49(13.8)	12(3.4)	94(26.5)	123(34.6)		

\*\* p< .01

① 매일 1시간미만, ② 매일 1시간 이상~3시간미만, ③ 매일 3시간~5시간미만, ④ 일주일에 3시간미만, ⑤ 전혀 하지 않는다.

<표 6>에서와 같이 게시판 글 올리는 정도를 살펴보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학생은 ‘일주일에 3시간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가 23.9%로 동일한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 1시간미만(19.8%)’, ‘매일 1시간 이상~3시간미만(18.2%)’, ‘매일 3시간~5시간미만(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 1시간미만’, ‘일주일에 3시간미만’이 23.9%로 동일한 수치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매일 1시간 이상~3시간미만(8.6%)’, ‘매일 3시간~5시간미만(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 발생시기별로는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하지 않는다(34.6%)’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시간미만(26.5%)’, ‘매일 1시간미만(21.7%)’, ‘매일 1시간 이상~3시간미만(13.8%)’, ‘매일 3시간~5시간미만(3.4%)’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진행(2003)의 연구에서는 46.2%가 매일 1시간 이상

이용하고, 1시간미만이라도 매일 이용하는 학생이 28.8%였다. 또한 4학년의 경우 48.8%, 5학년의 경우 69.2%, 6학년의 경우는 71.5%로 나타나, 높은 학년일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2. 통신언어 사용실태

### 1) 인터넷에서 친구들과의 통신언어 사용 정도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통신언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표 7>과 같다.

<표 7> 인터넷에서 친구들과의 통신언어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217	2.51	1.38	-2.67**
	여학생	138	2.89	1.19	
학교급별	중학생	115	2.51	1.35	-1.47
	고등학생	240	2.73	1.30	
시력정도	저시력	220	2.88	1.31	4.15***
	맹	135	2.30	1.26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92	2.77	1.29	1.63
	후천성	163	2.53	1.35	
거주형태	통학	138	2.48	1.29	-2.05*
	기숙사	217	2.77	1.33	
전 체		355	2.66	1.32	

\* p< .05, \*\* p< .01, \*\*\* p<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친구들과의 통신언어 사용정도는 2.66점으로 사용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M=2.89)의 통신언어 사용정도가 남학생(M=2.51)보다가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또한 시력정도별로는 저시력학생(M=2.88)의 경우가 맹학생(M=2.30)의 통신언어 사용정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형태별로는 기숙사생(M=2.77)이 통학생(M=2.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발달된 결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저시력학생이 게시판 이용도가 높은 것은 맹학생과는 달리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더 쉽고 빠르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통학생보다 기숙사생의 게시판 이용이 높은 것은 통학생은 기숙사생보다 컴퓨터 사용에 대해 가정에서 많은 간섭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통신 언어 사용 이유

게시판에 전혀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답한 12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하여 왜 통신언어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표 8>과 같다.

<표 8> 통신언어 사용 이유 (%)

변 인	구 분	빠르게 타자하기 위해	새롭거나 자유로운 느낌을 줘서	재미있어서	습관이 돼서	안 쓰면 채팅에 낄 수 없어서	df	$\chi^2$
성 별	남학생	44(27.5)	30(18.8)	55(34.4)	23(14.4)	8(5.0)	4	1.726
	여학생	39(33.6)	20(17.2)	33(28.4)	18(15.5)	6(5.2)		
학교급별	중학생	26(28.9)	19(21.1)	31(34.4)	12(13.3)	2(2.2)	4	3.345
	고등학생	57(30.6)	31(16.7)	57(30.6)	29(15.6)	12(6.5)		
시력정도	저시력	48(27.6)	35(20.1)	55(31.6)	28(16.1)	8(4.6)	4	2.712
	맹	35(34.3)	15(14.7)	33(32.4)	13(12.7)	6(5.9)		
시각장애발생시기	선천성	44(27.3)	27(16.8)	57(35.4)	23(14.3)	10(6.2)	4	3.927
	후천성	39(33.9)	23(20.0)	31(27.0)	18(15.7)	4(3.5)		
거주형태	통학	32(32.3)	20(20.2)	30(30.3)	12(12.1)	5(5.1)	4	1.529
	기숙사	51(28.8)	30(16.9)	58(32.8)	29(16.4)	9(5.1)		
전 체		83(30.1)	50(18.1)	88(31.9)	41(14.9)	14(5.1)		

<표 8>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어서(31.9%)’, ‘빠르게 타자하기 위해서(30.1%)’, ‘새롭거나 자유로운 느낌을 줘서(18.1%)’, ‘습관이 돼서(14.9%)’, ‘안 쓰면 채팅에 낄 수 없어서(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반응의 차이는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송진행(2003)의 연구에서는 ‘재미있으니까(40.0%)’, ‘새롭거나 자유로운 느낌을 주어서(21.7%)’, ‘빠르게 타자하기 위하여(15.0%)’, ‘습관이 되어서(8.3%)’, ‘채팅에 낄 수 없어서(8.3%)’의 순이었다. 통신언어를 재미있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학생과 정안학생 모두 재미있어서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하기 정도

<표 9>에서부터 <표 16>까지는 인터넷에서 통신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98명을 제외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제시된 통신언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표 9>은 소리 나는 대로 쓰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소리 나는 대로 쓰기에 대한 보기로는 ‘아라씨요, 마자마자, 조아’ 등이 있다.

<표 9>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3.07	1.23	1.15
	여학생	116	2.88	1.41	
학교급별	중학생	77	2.72	1.42	-2.03*
	고등학생	180	3.10	1.25	
시력정도	저시력	176	3.19	1.26	3.61***
	맹	81	2.55	1.33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2.92	1.39	-.95
	후천성	110	3.08	1.22	
거주형태	통학	92	2.81	1.30	-1.61
	기숙사	165	3.09	1.32	
전 체		257	2.99	1.31	

\*  $p < .05$ , \*\*\*  $p < .001$

<표 9>에서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쓰기’는 전체 평균의 점수도 2.99점 수준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별은 고등학생(M=3.10)이 중학생(M=2.72)보다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또한 시력 정도는 저시력학생(3.19)이 맹학생(2.5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높고, 기숙사생이 통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연구의 결과가 전체 평균 2.99인 것으로 볼 때, 이미 소리 나는 대로 쓰기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본래의 뜻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뜻 바꾸기 사용 정도

통신언어 중에는 ‘알쥐?’, ‘밥5취?’, ‘구치?’, ‘저사람 모냐?’ 등과 같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0> 본래의 뜻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바꾸기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2.69	1.26	.35
	여학생	116	2.63	1.32	
학교급별	중학생	77	2.70	1.47	.26
	고등학생	180	2.65	1.20	
시력정도	저시력	176	2.70	1.25	.62
	맹	81	2.59	1.36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2.72	1.40	.84
	후천성	110	2.59	1.12	
거주형태	통학	92	2.60	1.30	-.55
	기숙사	165	2.70	1.28	
전 체		257	2.66	1.29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본래의 뜻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의 평균은 2.66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 남학생(M=2.69), 중학생(M=2.70), 저시력(M=2.70),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2.72), 기숙사(M=2.70) 생활하는 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5) 낱말을 일부러 잘못쓰기 사용 정도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신언어들 중에는 ‘갈꺼엽’, ‘안돼져’, ‘맘대루’ 등과 같이 낱말을 일부러 잘못 쓰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사용 정도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낱말을 일부러 잘못쓰기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2.80	1.30	.14
	여학생	116	2.78	1.40	
학교급별	중학생	77	2.71	1.46	-.64
	고등학생	180	2.83	1.29	
시력정도	저시력	176	2.97	1.34	3.15**
	맹	81	2.41	1.28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2.82	1.45	.34
	후천성	110	2.76	1.19	
거주형태	통학	92	2.72	1.30	-.62
	기숙사	165	2.83	1.37	
전 체		257	2.79	1.34	

\*\* p< .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이 낱말을 일부러 잘못 쓰는 정도의 평균

은 2.79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성별, 학교급별, 시각장애 발생시기별, 거주형태별로는 양 집단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력정도별로는 저시력학생의 평균은 2.97점으로 맹학생의 2.41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는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한글맞춤법, 형식 등을 무시하여 표기하기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 말 줄여 쓰기 사용 정도**

통신언어의 유형 중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중의 하나는 말을 줄여 쓴 것으로 ‘넘웃켜’, ‘겜방’, ‘금 잘있어’, ‘넘웃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말을 줄여쓰기에 대한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2> 말 줄여 쓰기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3.12	1.21	-.56
	여학생	116	3.21	1.25	
학교급별	중학생	77	3.10	1.32	-.51
	고등학생	180	3.19	1.19	
시력정도	저시력	176	3.34	1.21	3.42**
	맹	81	2.79	1.19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3.17	1.27	.04
	후천성	110	3.16	1.17	
거주형태	통학	92	3.00	1.24	-1.62
	기숙사	165	3.26	1.21	
전 체		257	3.16	1.23	

\*\* p < .01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 줄여 쓰기 사용정도에서 여학생(M=3.21), 고등학생(M=3.19),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3.17), 기숙사(M=3.26) 이용학생이 말을 줄여 쓰는 정도가 상대 집단보다 약간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력정도에 있어서 저시력학생의 평균은 3.34점으로 맹학생의 2.7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말 줄여 쓰는 정도에 대한 평균이 3.16점으로 맹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이 3.0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말 줄여 쓰기가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7) 비속어 사용 정도**

<표 13>은 ‘우띠발’, ‘우씨’, ‘꺼져라’, ‘D지다’ 등의 비속어 사용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 사용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13> 비속어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2.80	1.36	4.13***
	여학생	116	2.12	1.26	
학교급별	중학생	77	2.24	1.37	-1.89
	고등학생	180	2.60	1.34	
시력정도	저시력	176	2.66	1.37	3.09**
	맹	81	2.12	1.26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2.42	1.39	-.89
	후천성	110	2.58	1.31	
거주형태	통학	92	2.35	1.30	-1.21
	기숙사	165	2.56	1.39	
전 체		257	2.49	1.36	

\*\* p< .01, \*\*\* p< .0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비속어의 사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M=2.49)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M=2.60),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2.58), 기숙사생(M=2.56)의 비속어 사용 정도가 상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의 평균은 2.80점으로 여학생의 평균 2.12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시력정도에 있어서도 저시력 학생의 비속어 사용정도(M=2.66)가 맹학생의 평균(M=2.12)보다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 통신상에서 비속어 사용이 많은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과격한 비속어 사용이 많기 때문이며,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비속어 사용이 많은 것은 일상생활에서나 통신상에서 타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8) 은어 사용 정도

<표 14>는 ‘당근이쥬’, ‘중딩’ 등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통신용어로 은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은어의 사용 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표 14&gt; 은어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3.15	1.34	1.08
	여학생	116	2.97	1.32	
학교급별	중학생	77	2.90	1.38	-1.26
	고등학생	180	3.14	1.31	
시력정도	저시력	176	3.25	1.33	3.34**
	맹	81	2.67	1.26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3.02	1.40	-.65
	후천성	110	3.13	1.24	
거주형태	통학	92	2.82	1.26	-2.28*
	기숙사	165	3.21	1.36	
전 체		257	3.07	1.33	

\* p&lt; .05, \*\* p&lt; .0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학교급별, 시각장애 발생시기별로는 양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력정도에 있어서 저시력학생의 은어 사용 정도는 평균 3.25점으로 맹학생의 평균인 2.67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거주형태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은어 사용정도 역시 평균 3.21점으로 통학생의 평균 2.82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저시력학생은 맹학생보다 통신 접근성이 용이하여 은어를 쉽게 접하여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기숙사생 또한 통학생보다 자유분방한 언어생활을 통하여 좀 더 은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9) 외래어, 외국어 사용 정도

<표 15>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로 된 낱말을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터넷 용어로는 ‘하2’, ‘하이루’, ‘쏘리’, ‘나한테’, ‘킴온’ 등이 해당된다.

&lt;표 15&gt; 외래어, 외국어로 된 낱말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3.02	1.29	.94
	여학생	116	2.87	1.24	
학교급별	중학생	77	2.88	1.30	-.56
	고등학생	180	2.98	1.26	
시력정도	저시력	176	3.12	1.27	3.31**
	맹	81	2.58	1.20	



항 목	구 분	N	M	SD	t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2.89	1.34	-.80
	후천성	110	3.02	1.17	
거주형태	통학	92	2.69	1.22	-2.48*
	기숙사	165	3.09	1.28	
전 체		257	2.95	1.27	

\* p< .05, \*\* p< .01

<표 15>에서와 같이, 남학생(M=3.02), 고등학생(M=2.98),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02)의 외국어 및 외래어 사용정도가 상대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력정도에 있어서 저시력학생의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정도는 3.12점으로 맹학생의 2.58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거주형태에 있어서 기숙사생의 평균이 3.09점으로 통학생의 평균 2.69점보다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는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영어에 대한 불안이 많다는 연구의 결과(하중순, 2004)와도 일치하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통신언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자판 기호(이모티콘)로 표현하기 사용 정도**

<표 16>은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자판 기호 즉, 이모티콘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즉, 웃음을 나타내는 ‘ㅎㅎㅎ’, ‘ㅋㅋㅋ’ 등이나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 ‘^-^’ 등이 이에 속한다.

<표 16> 자판 기호(이모티콘)로 표현하기 사용 정도

항 목	구 분	N	M	SD	t
성 별	남학생	141	3.43	1.33	.59
	여학생	116	3.33	1.41	
학교급별	중학생	77	3.28	1.46	-.78
	고등학생	180	3.43	1.32	
시력정도	저시력	176	3.61	1.30	3.94***
	맹	81	2.90	1.37	
시각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147	3.31	1.42	-1.10
	후천성	110	3.50	1.29	
거주형태	통학	92	3.13	1.35	-2.32*
	기숙사	165	3.53	1.35	
전 체		257	3.39	1.36	

\* p< .05, \*\*\* p< .00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판 기호로 표현하기 사용 정도’에서 남학생(M=3.43), 고등학생(M=3.43),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3.50)의 평균이 상대 집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력정도에서는 저시력 학생의 평균은 3.61점으로 맹학생의 2.90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 형태에서도 기숙사 거주학생의 평균이 3.53점으로 통학생의 3.13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5%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자판 기호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가 시각적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잔존시력을 활용하여 볼 수 있는 저시력학생이 보지 못하는 맹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비언어적인 통신언어에 대해 언어 순화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맹학교 중등부 시각장애학생의 통신언어에 대한 사용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율은 통학생이 기숙사생보다 높고, 스크린 리더 사용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높다. 또한 전자 우편주소의 소유량은 남학생은 미사용이 여학생은 2개가 가장 많고,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4개 이상,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은 미사용이 가장 많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 올리는 정도는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일주일에 3시간 미만이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고,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다.

둘째, 통신언어 사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기숙사생이 통학생보다 많이 사용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기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많이 사용한다. 또한 낱말 일부러 잘못쓰기와 말 줄여 쓰기는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많이 사용하고, 비속어 사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은어와 외래어·외국어, 자판기호로 표현하기는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기숙사생이 통학생보다 많이 사용한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에게 통신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대처방안 수립과 언어 순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신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 한정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일반학생과 함께 비교 분석한 통신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1999).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강덕구(2002). 고등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 김민희(2003). 통신언어의 양상과 기능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봉섭(1998). PC통신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 김주덕(2002). 고등학생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경녀(2001).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구 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진행(2003). 초등학교 고학년의 통신언어 사용실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호(2002). 인터넷 통신이 국어 생활에 미친 실태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복(1997).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어 언어 순화방안, 국어학회.
- 이정화(2004).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균(2006)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성향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1), 385-406.
- 임성득. (2002). 초등학교 일기 쓰기 지도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무사(2002). 국어 통신언어 교육의 방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http://isis.nida.or.kr>
- 천세욱(2003). 통신언어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 방안. 미간행 석사 학위 청구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설(2003). 청소년 통신언어 사용실태와 지도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중순(2004).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영어학습동기와 성취도.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The Actual State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Usage of Communication Language

**Kwon, Yeon Hui**

Kwangju School for the Blind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language purif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on communication language. This survey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sex, grade, the degree of visual acuity, the onset of visual handicap, the residence. The subjects were the 335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12 schools for the blind. The data were 15 questionnaires of composed of the actual state of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langu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actual state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usage of internet according to the element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screen reader, the rate of girl students higher than that of boy students, that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at of the congenital visually impaired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acquired visually impaired students, and in the actual state of the usage of communication language it appeared that girl students used more than boy students, low vision students used more than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and dormitory students used more than commuting students.

**Key Words** :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of middle school, communication language

---

논문 접수: 2007. 5. 5    심사 시작: 2007. 5. 10    게재 확정: 2007. 6. 25